

조계종 총무원이 최근 발간한 <불교 문화재 지정현황 목록>을 보면 우리 나라 국보·보물의 64%가 불교문화재이다. 그러나 조사가 안 돼 알려지지 않았을 뿐 지정 가치가 있는 사찰소장 불교 문화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측이었다.

현황 파악조차 안 돼 도난범들의 주요 표적이 됐던 사찰소장 불교문화재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문화재청 예산 지원으로 불교문화재 일제조사(2002~2011년)를 벌이고 있는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단장 설웅)은 첫해인 지난해 강원도 지역 109개 사찰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21일 결과를 공개했다.



◇속초 신홍사 목조아미타삼존불(1600년대 조성).



◇삼척 천은사에서 발견된 금동약사불입상(8~9세기).

강원지역 불교문화재 3,200점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작년 109사찰 조사결과 발표

120건 488점 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결과 1950년대 이전에 조성된 불교문화재는 999건 3,200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96년 조계종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강원지역 본·말사 성보문화재 현황조사 때보다 99건 761점이 늘어난 것이다.

시대별로 보면 조선시대 문화재가

2,974점으로 전체의 92.9%를 차지했으며 근대(132점), 고려시대(77점), 통일신라시대(9점), 기타(8점)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서지 및 전적류가 1,939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탑 등 석조물 382점, 경판 273점, 불상 등 조각류 230점, 서예 및 현판류 135점, 불화 107점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지정 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현재 지정된 강원지역 불교문화재(87건 452점)의 138%에 이르는 120건 488점으로 밝혀졌다. 특히 1600년대 조성된 속초 신홍사 목조아미타삼존불과 목조지장보살삼존상은 당장 보물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삼척 천은사에서 발견된 높이 14cm의 금동약사불입상(8~9세기) 역시 보물급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고성 화암사 칠성탱과 신증

탱 등 17건 294점은 훼손이 심해 보존처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유산발굴조사단 부단장 설웅 스님은 “해방이후 전국적 규모의 불교문화재 조사는 처음”이라며 “일제조사가 끝나면 비지정 불교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은 이번엔 조사된 불교문화재를 수록한 도록과 목록집, CD를 제작해 전국 검·경찰청, 공항·항만 문화재감정관실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올해는 조계종 1차 실태조사가 끝난 전북과 제주 지역 160여 개 사찰에 대해 정밀 조사한다.

권형진 기자 jimmy@buddhanews.com

개항이후 불교계, 타종교 어떻게 봤을까?

기독교인식 ‘편하’ ‘선망’ 교차 유교는 ‘윤리’ ‘교육사상’ 이해

송현주씨 종교문화포럼서



개항(1876년)이후 해방(1945년)에 이르는 시기, 한국 불교계는 기독교 등 다른 종교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18일 열린 한국 종교문화연구소 제20차 종교문화포럼에서 송현주(한국정신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사진)씨는 ‘근대 한국 불교의 타종교 인식과 이해의 태도’를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송씨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유심> <불교> 등이 시기 불교계에서 발행된 잡지 8종에 실린 글들.

먼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보면 ‘선망’과 ‘편하’라는 이중적 인식이 교차한

다. 송씨는 “불교 교리에 비해 기독교의 교리를 열등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미신’ 또는 ‘맹신’이라고 보는 시각이 불교계의 일반적 태도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포교, 구제사업 등 제도적, 실천적 문제에서는 기독교의 우월함을 인정하고 모방하려 했다.

유교와 민간신앙에 대해서는 종교적 영역에서 배제하려는 변화가 주목할 만하다. 유교를 종교라기보다는 일종의 ‘윤리’ 또는 ‘철학’ ‘교육사상’ 정도로 이해했으며, 불교의 ‘본질 회복’ 차원에서 무속을 포함한 민간신앙을 ‘미신’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불교로부터 분리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송씨는 “진리에 대한 배타주의와 포괄주의적 입장, 타종교에 대한 관용적 태도, 이 세 가지가 절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전남 화순 운주사는 여전히 배일에 가려진 곳이다. 천불전탑을 누가, 언제, 무엇 때문에 조성했는지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갖가지 설만 넘쳐난다. 발자리를 바탕으로 세워졌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밀교성지로 파악하거나 민간신앙 차원에서 이해하기도 한다.

화순 운주사 천불전탑 누가·언제 조성했나

10월 한중일 학술대회

(사)진단전통예술보존협회(회장 홍윤식)가 ‘운주사의 역사적 가치 검토’를 주제로 올 10월 한·중·일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학술회의에는 탑이나 불상뿐 아니라 불교교리나 불교

천문학 분야의 전문가 등 5명이 발표자로 나설 계획이다. 일본에선 각각 밀교학과 불교문화 분야의 권위자인 요리토미(代當) 슈우지인(種智院)대학장과 이시가미 겐노(石上善應) 슈우투쿠(徽徳)단기대학장이 발표를 맡는다. 국내외와 중국 쪽은 현재 설의 단계.

홍윤식(국악예술학교장) 박사는 “지금까지 ‘장남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설만 난무해 온 운주사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조명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주지역 절터 일제조사 다보탑 등 석탑 3기 보수

남산을 비롯해 경주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절터에 대한 일제조사가 시작된다. 또 훼손 및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불국사 석가탑과 다보탑, 감은사지 서탑 등 경주지역 국보급 석탑 3기도 보수정비에 들어간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5년 시작된 중요무형문화재 조사연구 및 기록화 사업은 올해도 계속될 예정이다(50호) 등 10건에 대해 영상물 제작과 조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미국 허버트대 연청 도서관을 비롯한 해외 주요 한국 전적 문화재 조사도 해외 조사사업과 별도로 추진된다.



불교공예(6)

치미에 새긴 신라인의 마음

경주의 중심, 더 나아가 신라의 중심을 상징하는 황룡사. 강당의 북쪽에서 출토된 조각들을 맞추어보니 높이가 182cm나 되는 치미가 그 위용을 드러냈다. 치미가 이만하니 그 강당이 얼마나 컸겠는가? 치미(鸚鵡)란 신화로 전하는 치(鸚)라는 새의 꼬리이다. 황룡사 치미를 보면 왼쪽으로 곡선을 그리며 휘어진 가운데 바깥부분에는 꼬리털이 새겨져 있다. 이 치미는 용마루 양쪽에 건물의 표정을 잡아주기도 하고 건물



의 위세를 드러내주기도 한다. 그러나 치미는 단순히 이러한 미화적인 고려에서 세운 것은 아니다. 치미 화재를 막는다는 강한 믿음에서



◇황룡사 치미(6세기, 높이 182cm,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황룡사 강당 꼭대기에 설치된 치미에 토우를 빚듯이 주물럭거리려 무늬를 나타내었다.

러 질박한 표현을 좋아한 신라인의 취향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얼마나 토우식의 질박한 표현을 좋아했으면 지붕의 꼭대기에까지 그것을 표출한 것일까? 신라토우에 대해 남다른 애착을 보이는 신라인들의 본성을 이해한다면 어느 정도 의문이 해소될 것이다. 왕릉 급이나 귀족 계층의 무덤에서도 질박한 토우나 토우로 장식한 잘 생긴 토

기가 출토되는 나라가 신라이다. 토속미는 하루계층, 세련미는 상류계층과 같은 도식적인 분석은 적어도 이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삼국 가운데 신라만큼 토속성이 짙게 배인 문화를 가진 나라가 없고 신라만큼 국제적인 열망을 보인 나라도 없었다. 신라인은 강한 토속문화의 기반 위에 세계 문화를 받아들였다.

황룡사 치미 얼굴·연화문양 표현 질박해

신라인들 ‘토속’ 바탕 외래문화 받아들여

비롯한 것이다. 불에 취약한 목조건축에서

의문에 휩싸인다. 곁에 노인들의 얼굴과 연화문양을 두드러지게 새겼는데, 토우를 빚듯이 거칠게 손가락으로 주물럭거리려 표현한 것이다. 그것도 해석적으로 신라에서 가장 큰 사찰의 건물 꼭대기에 설치된 치미의 무늬를 왜 세련되고 정교하게 다듬지 않고 손가락으로 거칠게 주물럭거리려 만든 것일까? 치미가 큰 건물의 꼭대기에 있어 밑에서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잘 잡히지 않으니 외공들이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장난기를 발동시킨 것일까? 아니면 솜씨가 떨어진 외공의 작품인가? 이보다는 오히려

괴테는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문화가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이다. 괴테의 논리를 신라문화에 적용하면, 국제적인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를 꾀한 문화가 신라문화인 것이다. 신라미술에는 두 종류의 미의식이 공존하고 있다. 하나는 토우와 같이 토속미가 짙게 배어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천마도와 같이 외래적인 미술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두 미의식은 양극단에 서서 대조를 이루기도 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기도 한다. 그만큼 외래적인 세련미 못지 않게 전통적인 토속미도 더불어 애호한 민족이 신라인인 것이다.

■경주대 문화학부 교수

“자비의 등 지혜의 등”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 의외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주름등



보관상태

팔모조립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만월등



※ 연등에 사찰이름을 인쇄할 경우 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준곡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 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